

예술영재성의 의미와 특성: 음악, 전통예술, 발레 분과를 중심으로

원 영 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영재성의 의미와 특성 탐색은 후속되는 영재 판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즉, 체계와 내실을 갖춘 영재교육의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 영재성의 의미와 세부 특성에 관한 분석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에 이 연구는 예술영재성의 범주에 속하는 음악 및 전통예술, 발레 영재성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사례를 중심으로 각 영재성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음악 및 전통예술(전통음악, 전통무용, 연희), 발레 분야 영재성의 심리학적 구인과 세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영역 특성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예술영재가 지닌 내재적 특성 요인과 외재적 조건 요인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예술영재성에 관한 논의 및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예술영재성, 음악영재성, 전통예술영재성, 발레영재성

I. 서 론

2002년 4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영재교육이 투입된 이후 지금까지 예술영재성의 개념 규정 및 판별,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와 관련된 기초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나아가 연구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기관 및 사회심리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된 판별도구의 타당화 연구, 미성취 영재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예술영재 특성 관련 연구 등, 예술영재와 관련된 연구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시키고 예술영재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심리 분위기를 고무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예컨대 16개 시·도별 예술영재교육 운영 상황을 보면, 2011년 8월 기준, 전체 영재교육대상자 108,548명 중에서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수는 3,172명(전체 영

교신저자: 원영실(yewon97@hanmail.net)

*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2012)로 수행된 ‘공연예술영재성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재교육 대상자 비율 중 2.92%에 해당)으로 나타났다(김규상, 2011). 수학 및 과학 영재교육 대상자에 비하여 비록 소폭이기는 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예술영재교육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술영재교육의 질적 내실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반 예술교육과는 구분되는 예술영재교육의 내실화 및 체계화를 위한 논의의 일면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2007년 기준 국내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가 특정분과의 영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수업모형 및 교수학습 개발 관련이다. 또한 연구 대상은 대부분 수학 및 과학 분과 영재이다. 이들에 관한 연구가 80%를 넘어서는 반면 예술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5%수준 미만에 그쳤다(한기순, 양태순, 2007). 나아가 2012년 기준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가 프로그램, 인지, 정서인데, 이는 2007년 기준의 분석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영재교육 연구 역시 특정 주제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반영해준다(박경빈, 2012). 또한 프로그램 연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혹은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주류이며, 특히 프로그램 효과 검증의 경우 그 연구 대상이 대부분 수·과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예술이나 언어, 정서, 사회성을 다루는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드물다. 지극히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예술영재의 경우, 영재성 요인이나 판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다는 예술영재 육성 방안, 혹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제언 위주의 기초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 영재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결과는 향후 예술영재교육 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책임과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준다. 국가의 지원 속에 예술영재교육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술영재 관련 연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이 연구는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에서 드러난 가장 취약한 부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재교육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학문적 기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예술영재교육은 예술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그에 따라 예술계 학교의 재학생이 일반계 학교 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예술영재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예술계 중·고등학교 학생이 지닌 높은 수준의 예술영재성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예술계 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예술영재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한다. 또한 예술계 중·고등학교의 선발 및 교육과정, 평가의 내용 및 체계가 과연 영재교육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환언하면 예술영재교육이 일반 예술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영재교육 고유의 교육 체계에 있다. 예술영재교육은 해당 영재성의 규정 및 세부 특성을 탐색하고, 규정된 개념 및 특성에 입각한 판별을 수행하며, 판별된 학생을 대상으로 그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한 후, 최종 평가를 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러한 영재교육의 체계 속에서 해당 영재성의 의미와 특성 분석은 후속되는 판별 및 교육과정 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임과 동시에 예술영재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술영재성의 개념이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 수렴 절차에 따라 규정될수록 해당 영재교육의 결과는 더욱 성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성공적인 예술영재교육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첫 단계에 해당되는 예술영재성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예술영재성의 의미에 관한 기초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수렴적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고 그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으로 점차 확대되는 예술영재교육의 기본 구조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이해에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예술의 영역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서양 음악을 포함한 특정 예술분과에 대한 연구가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속성의 예술영재성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십여 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국내 영재교육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예술영재성의 의미에 대한 수렴적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예술영재성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수렴적 논의를 담당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예술영재교육의 투입을 돕기 위함이다.

II. 예술영재성의 의미와 특성 분석

이 글에서 의미하는 예술의 범주는 음악, 전통예술, 발레이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예술영재교육원의 전공분야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음악은 한국전통음악과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서양음악 분과를 의미하여, 전통예술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연희의 세 분과를 포함한다. 전통무용을 발레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상기에서 거론한 바, 국내 예술영재교육원의 전공영역 실체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내의 경우 전통무용은 전통예술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무용영재교육원은 서양의 발레공연 분과만을 포함한다. 이제 국내의 다양한 문헌 및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 전통예술, 발레 영재성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음악영재성의 의미와 특성

지난 수십 년 동안 음악영재성의 의미에 관한 탐색과 논의는 지속되었다. 주로 서구학자를 중심으로 음악성의 속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음악성이 어떠한 심리학적 구인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나아가 음악성의 속성 관련 논의와 영재성의 속성 관련 논의가 결합되면서 음악영재성의 속성에 대한 학문적 수렴의 결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음악성의 구인특성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음악성을 일컬어 특정인의 음악적성, 음악적 능력, 음악지능, 음악성취도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이것은 음악영재성의 속성에 대한 수렴적 논의의 과정에서 관찰되는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음악적성은 음악학습의 결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경험의 복합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잠재능력을 의미하며 향후 교육의 정도에 따라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음악 영역에서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해 주는 심리학적 구인이다. 음악적 능력은 인간에게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음악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학습된 음악적 기술이나 음악적 경험에 초점을 두기보다 기질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심리학적 구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음악성취도보다 음악적성의

영역에 근접한 개념이다. 음악적 능력과 연관된 의미로 음악적 소질 혹은 음악적 재능이 있다. Gardner가 제안한 다중지능이론에서 지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음악지능은 음악적 재능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심리학적 구인이며, 음악성취도는 음악학습 결과의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잠재능력의 의미를 지닌 음악적성 혹은 음악지능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음악영재성이 음악적성, 음악적 능력, 음악지능, 음악성취도 중 어느 영역의 의미를 내포하는지의 문제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논쟁거리다. 환언하면 음악영재성이란 특정한 용어가 지칭하는 영역으로 국한시킬 수 있을 만큼의 단순한 심리학적 구인이 아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음악적성 수준은 높는데 음악적 능력이나 음악지능의 수준은 낮은 경우에 속하거나, 반대로 음악적 능력 수준은 높는데 음악적성 수준은 낮은 경우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음악영재성은 단순한 추정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복합적인 심리학적 구인이다.

여러 전문가와의 인터뷰 결과, 음악영재성의 속성으로 뛰어난 음악적 능력과 정의적 특성이 거론되었다. 나아가 음악적 능력의 하위 특성으로 음악적 감각, 음악표현력, 음악이해능력, 음악분석능력 등이, 정의적 특성의 하위 구인으로 내재적 동기, 음악에 대한 열정, 연습에 대한 인내력, 의지 등이 제안되었다(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음악전문가들이 제시한 음악적 능력의 범주에는 음악표현력이 포함된다. 그러나 음악표현력을 음악적 능력의 영역으로 볼지, 혹은 음악적 능력과는 별개로 음악창의성이라는 독립된 영역으로 볼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예컨대 미국의 TBW 음악영재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악표현성은 즉흥연주 및 작곡과 함께 음악창의성의 영역으로 범주화되어 있다(원영실, 2009, 2010).

Haroutounian(2002)은 음악적성, 음악지능, 음악적 기술과 테크닉, 음악창의성을 음악적 능력의 결정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음악적성은 선천적 능력임과 동시에 음악활동의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 소리를 지각하고 그 차이를 변별하는 능력, 앞선 음악경험을 기억하고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음악지능은 소리의 경험을 통해 음악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음악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하나의 음악경험과 또다른 음악경험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누적된 음악경험으로부터 음악이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음악적 기술 및 테크닉을 의미하는 연주능력은 악기의 기본 주법 및 기술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감각기능, 정확하고 민첩한 연주기능,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할 수 있는 음악적 표현능력을 의미하며, 음악창의성은 자발적으로 음악을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즉흥연주 능력, 음악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반응하거나 표현하는 능력, 표현에 몰입하여 자신의 느낌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작곡 등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신혜경, 정진원, 2012). 그의 제안은 음악영재성의 속성인 음악적 능력을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각 영역의 구체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속성을 범주화함에 있어서 모호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보인다. 첫째, 음악적성과 음악지능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적성에 비하여 지능을 좀 더 가시화된 음악적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경계선은 모호하다. 또한 음악지능을 가시화된 능력으로 국한시킬 어떠한 기준도 없다. 둘째, 연주능력의 하위 속성인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할 수 있는 음악적 표현능력'과 '음악창의성'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셋째, 음악적 능력의 하위 구인으로서의 연주능력을 음악적성이나 음악지능, 음악창의성 속성과 동등한 위계로 취급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연주는 음악지능 등의 속성과는 구분되는 위계 영역들, 예컨대 작곡이나 음악이론 등의 영역과 연계되는 특성이다. 환언하면 연주능력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음악적성이나 음악지능, 음악창의성의 속성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연주능력을 음악적성 등의 속성과 같은 위계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넷째, 연주능력을 제외하더라도 음악적성 및 음악지능, 음악창의성과 같은 인지적 측면의 요인만을 음악영재성의 요인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 즉 동기를 포함한 비인지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보인다.

또한 Haroutounian(2002)은 음악영재성의 구체적인 특성을 추적하기 위하여 134명의 음악 및 음악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음악 잠재능력 및 음악 성취능력 평가 요소를 활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이들의 답변에 의하면 음악 잠재능력 및 성취능력의 속성은 크게 음악적 능력, 창의성, 정의적 특성으로 수렴된다. 음악영재성이 음악 잠재 및 성취 능력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음악영재성은 위에서 제시한 음악적 능력, 창의성, 정의적 특성의 하위 속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음악영재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곧 음악영재성이란 '가시적인 음악적 능력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학습된 능력보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능력을 의미하고, 앞으로 음악영역에서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McPherson(2003)은 Gagne(2003)의 영재성 차별화 모형(DMGT)을 적용하여 음악영재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음악영재성 역시 DMGT의 핵심 요인인 '개인의 잠재능력, 개인의 성격, 발달과 성장과정, 환경적 촉매, 이상의 요인들을 자극하거나 연계시켜주는 기회'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고, 음악재능의 유형으로 '연주, 즉흥연주, 작곡, 편곡, 감상, 지휘, 음악학습지도'의 여덟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신혜경, 정진원, 2012). Gagne(2003)는 상위 10% 이내에 포함되는 영재성의 속성으로 '지능요인(IG), 창의성요인(CG), 사회정서적 요인(SG), 감각운동적요인(MG)'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재적 특성은 환경과 결정적 기회의 외재적 요인 및 동기와 성격 등을 포함한 또다른 내재적 특성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달적 과정을 거쳐 특정한 영역의 영재성으로 발현된다. McPherson은 Gagne의 모형을 적용하여 음악영재성을 '음악적 지능, 음악적 창의성, 음악적 사회정서성향, 음악적 감각능력'으로 치환하여 설명하였다(신혜경, 정진원, 2012). 즉 음악지능과 음악창의성의 인지적 능력과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나 리더십을 포함한 사회정서 능력, 음악에 대한 감각 능력을 음악영재성의 속성으로 보았다.

원영실(2011, 2012, 2013)은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용 부모 및 교사 관찰정보 문항의 개발 과정에서 음악영재성의 심리학적 구인을 탐색하였다. 먼저 부모관찰정보지(OSPG)의 문항분석 결과, 음악영재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속성으로 음악성, 창의성, 동기 구인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내재적 속성이 사장되지 않고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 지지 및 음악에

대한 가치인식 등과 같은 외재적 환경조건의 지원이 필수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교사관찰정보지(OSTG)의 문항분석 결과, 음악영재성의 심리학적 속성으로 음악성, 창의성, 과제집착력의 하위 구인이 수렴되었다. 그러나 부모관찰정보지와는 달리 교사의 지원을 포함한 외재적 환경조건 요인은 수렴되지 않았다.

영재성이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과 창의성, 과제집착력이 특정한 분야에서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심리학적 특성을 의미한다(Renzulli, 1978).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음악 영재성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 음악에 대한 과제집착력이 서로 얽혀 있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 세 가지의 속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의미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가. 음악적 능력

소위 음악성으로 불리는 음악적 능력의 속성 추적을 위해서는 먼저 음악의 속성에 관한 논의가 우선적이다. 음악은 ‘소리’를 속성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리에 대한 예민한 지각 및 인지 능력은 음악성의 주요 속성이다. 음악지각 능력은 음정, 가락, 리듬, 음색, 화성 등, 음악적 개념에 대한 구별 능력을 의미하며, 음악인지 능력은 표현성, 음악기억, 음악이해, 음악 비판 및 분석 등의 능력을 의미한다. 음악영재가 지닌 음악적 능력의 범주에는 마땅히 소리, 즉 음악에 대한 예민하고 정교한 지각 및 인지 능력이 포함된다. 음악적 개념은 음악적성검사나 음악영재 판별을 위한 평정척도의 평가준거로 채택될 수 있다. 환언하면 음악적성검사나 평정척도에 나타난 음악적 개념을 중심으로 음악의 속성을 추적하면 곧 음악적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서구의 음악적성검사는 크게 두 가지의 맥락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첫째, 순수한 음의 감각적 지각능력에 초점을 둔 견해로, Seashore(1939)가 제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음악성이란 음을 구성하는 각각의 독립된 요소를 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들 독립된 능력들이 모두 복합되었을 때 개인의 음악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이 개발한 음악적성검사는 음의 본질적 요소인 음높이, 음길이, 음의 강도, 음색, 음 기억력, 화음 변별력 등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높은 음악적 능력이란 음높이 등의 음악 본질 요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각 및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음악적 능력이란 음악의 흐름 속에서 음의 역동적인 관계를 지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통합적인 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Wing (1960)과 Gordon(1982, 1986, 1987, 1989)이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의 음악적성검사는 가락, 리듬, 화성, 템포, 프레이징, 스타일, 음색 등의 속성에 대한 지각 및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음악적 능력이란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가락 등을 포함한 음악의 역동성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Renzulli의 영재성 정의에 기초하여 음악영재 판별용 체크리스트로 제작된 TII(Talent Identification Instrument)의 평가 준거는 음악적 능력의 구체적 속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준다(원영실, 2009, 2010, 2011).

<표 1> 음악적 능력 평가 준거

리듬 지각 및 인지	소리 지각 및 인지	신체운동과의 협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전체로 박자를 느낌 ○ 느껴진 박자를 그대로 유지함 ○ 박자의 형태나 장단을 제시함 ○ 리듬의 시작과 끝부분을 인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조(tone)와 음높이(pitch)를 구별함 ○ 음악의 역동성(dynamics)을 느낌 ○ 음정을 맞춤 ○ 멜로디를 반복해서 따라 부를 수 있음 ○ 들려지는 멜로디를 한 옥타브 위로 따라 부를 수 있음 ○ 독립적인 성부를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듣고 공간으로의 빠른 이동을 함 ○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신체반응을 함 ○ 음악에 맞추어 신체운동을 지속시키거나 멈출 수 있음 ○ 양손을 사용하여 반복형태의 리듬을 유지함

<표 1>에서 보듯이 TII의 음악적 능력 평가 기준은 리듬, 가락, 화성 등의 복합적인 음악 속성을 지각하고 인지하며, 그 속성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경실(2004)과 원영실(2009)은 각각 한국음악적성검사와 국악적성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락과 리듬에 대한 지각 및 인지능력’을 음악성 평가의 기본 요소로 설정하였다. 음악성의 하위 요인으로 가락과 리듬에 대한 인지능력만을 투입한 것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악적성검사 개발 연구에서 보듯이 인간의 음악적성, 혹은 음악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락과 리듬 요인 외에 여타 음악적 개념을 투입하여 측정할 경우 해당 검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가 그리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음색이나 형식 등 다양한 음악적 개념을 투입하여 측정하는 경우와 가락 및 리듬 개념에 국한하여 측정하는 경우의 결과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이미 검증된 연구결과이다(현경실, 2004). 이는 음악성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락과 리듬에 대한 지각 및 인지 능력임을 반영해 주는 사례이다(원영실, 2009).

<표 2> OSPG와 OSTG 문항에 나타난 음악성의 특성

OSPG 문항에 나타난 음악성의 하위 특성	OSTG 문항에 나타난 음악성의 하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시절(5세,7세),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 비교적 정확하게 따라 부른다. - 타인이 부르는 곡조가 틀렸을 때, 틀렸다는 지적을 한다. - 음정의 차이(혹은 변화)를 잘 지각한다. - 리듬에 대한 예민한 지각능력을 지니고 있다. - 어떠한 노래를 들으면 가사보다 선율을 먼저 기억한다. - 일정한 선율을 듣고 그 선율을 비교적 쉽게 따라한다. - 또래에 비하여 음악 선율을 빨리 외울 수 있다. - 또래에 비하여 악기 및 노래를 빨리 습득한다. - 스스로 음악을 분석하면서 듣거나 연주한다. -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잘 구별한다. - 리듬의 시작과 끝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 음높이(pitch)를 잘 구별한다. - 또래에 비하여 음악의 역동성(dynamics)을 잘 느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의 변화를 잘 지각한다. - 몸 전체로 박자를 느낀다. - 리듬감 및 장단감이 우수하다. - 한번 들은 선율에 대한 기억력이 우수하다. - 음악 감상 시,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잘 구별한다.

원영실(2010, 2011)은 음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OSPG)와 교사관찰정보지(OSTG) 문항개발 연구를 통하여 추정 음악영재가 지니고 있는 음악성의 구체적인 속성을 탐색하고 수렴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음악영재로 추정되는 학생에게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능력은 가락과 리듬을 포함한 음악적 속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각 및 인지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서구에서 개발된 음악적성검사의 준거, TII 영재판별 체크리스트의 내용, 한국음악적성검사 및 국악적성검사 문항, OSPG 및 OSTG의 평가 준거를 통하여 추론하면, 음악적 능력이란 가락이나 리듬을 포함한 음악의 속성을 정교하고 정확하게 지각하고 인지하며 그 속성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나. 창의성

음악영재는 유연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하며, 높은 감수성과 직감력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융통성 있고 확산적인 사고를 하며, 정교한 사고를 통해 새로운 것을 산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성경희, 1993). 즉, 음악영재는 일반창의성의 속성인 독창성, 유연성, 융통성, 정교성의 특징을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니고 있다(원영실, 2010, 2011). 음악영재성에 녹아있는 창의성은 음악영재 판별 준거에 포함된다. 환언하면 음악영재성 선별용 부모 및 교사 관찰정보지(OSPG & OSTG, 원영실, 2010, 2011)의 창의성 관련 문항은 음악영재가 지닌 창의성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

<표 3> OSPG와 OSTG 문항에 나타난 창의성의 특성

OSPG 문항에 나타난 창의성 하위 특성	OSTG 문항에 나타난 창의성 하위 특성
-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한다.	1. 또래 아이들에 비해 ‘영똥한 제안이나 생각’으로 선생님을 놀라게 한다.
-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영똥한 제안이나 생각’으로 부모를 놀라게 한다.	2. 또래에 비해 독특하고 개성이 있다.
- 주변으로부터 ‘독특한 아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3. 음악을 듣고 느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즐긴다.
- 자기 스스로 ‘나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자주한다.	4. 음악을 감상한 후 그 음악에 대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5. 또래에 비해 풍부한 정서를 소유하고 있다.
	6. 낯선 음악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는다.
	7. 새로운 연주기법에 대하여 흥미를 보인다.
	8. 또래에 비해 새로운 악구를 잘 만든다.
	9. 새로운 음색을 잘 만든다.

<표 3>에서 보듯이 부모에게 관찰되는 음악영재의 창의성은 주로 일반창의성이다. 그러나 교사에게 관찰되는 창의성은 부모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표 3>의 우측면에서 보듯이, 1, 2, 5번 문항은 일반창의성의 속성으로 이는 OSPG의 경우와 동일하다. 하지만 3, 4번 문항은 일반창의성과는 구별되는 음악에 대한 표현성으로 해석되며, 6, 7번 문항은 창의적인 음악과 음악기법에 대한 호기심으로 해석된다. 또한 8, 9번 문항은 즉흥연주 및 작곡을 포함한

음악창의성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사에게 관찰되는 음악영재의 창의성은 일반창의성과 음악영역 특수창의성으로 구분되어 관찰된다. 일반창의성은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호기심과 흥미를 포함한 정서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심리학적 구인이다. 그렇다면 일반창의성과 구별되는 음악영역 특수창의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의미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음악창의성은 음악예술행위 자체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음악창의성은 음악영재성의 핵심적인 구성 요인이다. 그러나 음악창의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음악적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이나 즉흥연주와 같은 음악행위는 음악영역에서의 특수한 창의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눈에 관찰될 수 있는 심리학적 구인임을 반증해 준다(원영실, 2010, 2011). 다음의 <표 4>는 음악창의성이 어떠한 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준다.

<표 4> 음악창의성 평가 준거

표현성	즉흥연주와 작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함 ○ 열정적이고 강도 높게 연주함 ○ 음악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으로 변주함 ○ 특이한 악구를 만들 ○ 새로운 음색을 만들 ○ 노래를 변형시키거나 만들

음악창의성이란 <표 4>에서 보듯이 음악을 듣고 내면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변주 혹은 즉흥연주, 나아가 작곡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음악영재성은 일반창의성 구인과 <표 4>에서 보이는 음악창의성 구인을 모두 포함하는 속성이다.

다.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동기

영재성은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과 창의성, 과제집착력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구인이다(Renzulli, 1978). 영재성에 대한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는 음악영재성의 속성 규정 및 특성 탐색에도 영향을 준다. 음악영재성의 하위 구인인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동기 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표 5> 음악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동기 평가 준거(원영실, 2010, 2011)

열정	집중력	인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활동에 활발하게 반응하고 참여함 ○ 호기심과 질문이 많음 ○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 열린 마음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과제 수행 시 주의집중도가 높음 ○ 음악 수업 시 주의 깊게 경청함 ○ 주의를 집중하여 과제를 완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음 ○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악 과제를 완성함

<표 5>에서 보듯이 음악과제집착력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강한 집중력, 음악행위를 함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등의 심리학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음악영재 판별 평가 준거에도 잘 드러나 있다.

<표 6> OSPG와 OSTG 문항에 나타난 동기 특성

OSPG 문항에 나타난 동기의 하위 특성	OSTG 문항에 나타난 동기의 하위 특성
-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함	- 음악수업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임
- 악기를 연주할 때 몰입함	- 음악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함
-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진정으로 즐김	- 음악수업을 할 때 집중도가 높음
- 장시간동안 음악을 연습하거나 감상해도 지루해하지 않음	- 악기를 연주할 때 몰입함
- 다양한 음악이론이나 음악역사에 지속적인 흥미를 보임	- 음악을 들을 때 몰입함
- 음악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주위의 사물이나 벌어지는 상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음	-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창이나 악기 연습을 스스로 함
-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함	- 자신이 만족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함
- 난이도가 있는 악곡을 스스로 선택하여 포기하지 않고 완주함	-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함
- 음악 과제를 끈질기게 연습함	
- 음악 과제를 수행할 때 집중도가 높음	
-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창이나 악기 연습을 스스로 함	

<표 6>에서 보듯이 부모나 교사에게 음악관련 동기는 비교적 일관된 속성으로 관찰된다. 즉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음악 과제에 대한 집중력, 어려운 과제(악곡)일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끝까지 연습하여 완주하는 강한 인내심 등의 속성을 의미한다. 다양한 악기의 연주 경험이 있는 음악영재 중에서 어떤 영재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서양악기에, 어떤 영재는 국악기의 연주에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원영실, 2009, 2010). 예컨대 음악영재에게 요구되는 음악적 능력 및 음악창의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재는 서양의 악기인 피아노에, 어떤 영재는 국악기인 가야금에 집중한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난이도가 있는 연주곡을 스스로 선택하여 완주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하며 새롭거나 실험적인 음악적 표현에 강한 호기심을 보인다. 음악적 능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면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동기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강한 영향을 받는다. 즉 영재에게 어떠한 후천적 환경이 작용해 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재는 피아노나 바이올린과 같은 서양의 악기에 강한 과제집착력을 보이며, 어떤 영재는 가야금이나 해금과 같은 국악기에 강한 과제집착력을 보인다. 서양음악영재는 당연히 전자의 경우에, 국악영재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원영실, 2009).

지금까지의 논의를 수렴하면, 결국 음악영재성은 높은 수준의 음악적 능력이라는 특정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창의성과 음악창의성을 아우르는 창의적 능력, 음악에 대한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강한 수준의 동기와 같은 심리학적 구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음악영재의 내재적 특성은 부모나 학교를 포함한 환경 요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음악영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요인에 의하여 극대화된다.

2. 전통예술영재성의 의미와 특성

이 글에서 전통예술의 범주는 전통음악, 전통무용, 연희의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예술성을 ‘악·가·무’ 일체의 특성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역사적 맥락의 관점과 그러한 맥락을 여전히 존중하는 현재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내린 조작적 정의이다.

전통예술영재성의 개념 추적을 위하여 15명의 전통예술 명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사례 연구(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8)의 결과에 의하면, 제보자인 실존 명인들의 경우 전통예술

<표 7> 전통예술 명인들이 제시한 전통예술영재성의 특성(KRIGA, 2008)

주전공	제보자	전통예술영재성의 특성
전통 음악	강정숙	음악, 암기력, 성음, 연습, 예술학습속도, 학교공부, 통합적 학습능력, 학습순발력, 철저한 자세, 감수성, 타고난 재질, 환경적 재질, 경제적 재질, 인성, 언어능력
	김영재	노력, 재미, 연습, 만족감, 자신감, 좋아함, 즉흥성, 창의성, 청음, 독보력, 모방력, 사고력, 음악적 소질, 재질, 소질, 재주, 기량, 성음, 기초, 시창, 춤, 노래, 영특, 체력, 기발한 아이디어, 표현력, 응용, 능현, 창조적 욕심
	서용석	자기 의지, 기초, 창작, 음정, 떠는 음, 소질
	이생강	천재, 타고난 체질, 재밌고, 감동시키고 칭찬받고 용돈, 잡념, 재질, 소질, 기능, 몰입, 변화무쌍, 감동, 기초, 재주, 겁없음
전통 무용	정재국	기술자, 머리, 판단력, 음악적 해석능력, 빨리 배우고, 끼가 있고, 갈래를 넘나들고, 시창, 청음, 체보, 시김새, 나이 수준을 뛰어 넘은 것, 정확한 음, 기교, 풍부한 감성, 연습, 암기, 책임감, 좋아서 연습, 성능, 성음, 기량, 기교, 순발력, 창조성, 큰 꿈, 느낌
	지순자	장단, 음정, 재주, 몸의 자태, 노력, 지구력, 예술성, 순발력, 리듬, 선율, 음, 성대, 확산, 음, 귀, 도전력, 인내력, 승부욕, 몸반음
	최경만	창조적, 연습, 즐거워서, 김, 서치기, 마음가짐, 열정, 환경, 흥내내기, 기초음악성, 예민, 빠르다, 순발력, 머리, 재주, 끈기, 음악적 감각, 훈련, 애정, 음정, 탄탄한 소리, 장호흡, 장단귀, 시김새, 표현력, 응용, 입술근육,
	박송희 성우향	재치, 기억력, 연마, 영특, 영리, 빠르다, 재간, 재미, 목구멍, 목, 혼자서, 암기, 연습, 기억 소질, 목, 노력, 끈기, 타고난, 선생, 성음, 기초
성악	안숙선	환경, 예술가의 집안, 격려, 연습, 응용력, 기억, 정확한 음, 목, 성량, 박자, 음정, 한국음악의 독창성, 음악성, 기교, 자기표현, 박자 붙임, 성음, 발음, 연결 부분, 이해력, 음악을 즐겨하고, 사랑하고, 끈기, 인내, 자긍심, 자체 의지
	정희석	끼가 있다, 참 잘 따라한다, 흥내, 목, 공력, 연습, 몸동작, 도전력, 애정, 음의 길, 선율, 조성, 장단, 해석, 자율성, 표현력, 창조성, 공력, 너무 좋아, 변형
전통 무용	강선영	적극성, 재주, 겁없이 연습, 소질, 스승, 자세, 이해력, 따라하기, 연습, 기본, 자기 기분 재질, 공부잘함, 표현력, 위엄성, 기능, 머리, 노력, 음악성, 따라하기, 창의력, 통합교육, 집중교육, 특기, 머리, 자질, 음악이해력, 성취력, 음악성, 음색, 몸을 표출, 감성, 감각성, 시각, 자기의 표정, 객석에 대한 포용력, 표현력, 인성, 얼굴, 몸매, 안목, 감수성, 응용력, 자기 안목, 시선, 자기 평가, 연구
	이흥구	호기심, 재미, 다재다능, 재담, 자율성, 학업에 대한 욕심, 감성, 동작, 이해력, 호흡, 인지, 놀음에 대한 이해, 감수성, 미적판단, 끈기, 열정, 행위, 창조적 질문, 후계구도, 열정, 끈기, 상상력, 동작, 장단
연희	김대균	호기심, 재미, 다재다능, 재담, 자율성, 학업에 대한 욕심, 감성, 동작, 이해력, 호흡, 인지, 놀음에 대한 이해, 감수성, 미적판단, 끈기, 열정, 행위, 창조적 질문, 후계구도, 열정, 끈기, 상상력, 동작, 장단
	김덕수	씩수, 천재소년 의지, 소질, 감성적 표현, 재주꾼, 꿈, 진취적 기운, 도전성, 장단, 기능, 인성, 적성, 순간 받아들이는 창의력, 응용, 창작, 연구, 노력, 두려움 깨기, 모방, 신체조건

영재성의 의미를 규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이하 KRIGA) 연구진(2008)은 <표 7>에 나타난 다면적 특성을 연구 분석용 어휘로 재해석하였다. 예컨대 무대에서의 창조적 대응력, 학습속도, 음감 및 리듬감, 암기력, 자기동기 및 자기조절, 감수성, 끈기 및 집착, 표현성 및 창조성, 모방, 도전감, 자신감, 인내, 연습 및 성실성, 성취감 및 적응력, 잠재성 및 소질 등의 어휘가 전통예술영재성을 설명하는 의미로 수렴되었다. 또한 연구진(KRIGA, 2008)은 명인들의 제보 내용을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전통예술영재성 선발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기예관련 요인, 교육 관련 요인, 예술적 통찰관련 요인, 환경관련 요인, 기타(도전감, 야망, 보수 등) 요인’이 그것이다. 명인들이 제보한 특성들이 전통예술영재성의 개념규정화를 위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진 역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연구결과를 통하여 전통예술영재성이란 ‘기예학습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고 예술적 지향을 설정하여 이를 시공간을 넘어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이라 규정하였다.

상기의 연구는 서구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전통예술 영재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전통예술영재성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러 명인들이 저마다의 어휘로 영재성의 특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세부 특성은 보다 상위의 심리학적 구인으로 분류가능하다. 즉, ‘전통예술 학습속도, 음감 및 리듬감, 암기력, 적응력, 잠재성 및 소질 등’은 ‘전통예술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의 특성으로, ‘무대에서의 창조적 대응력, 감수성, 표현성 및 창조성, 모방 및 도전감, 성취감 등’은 ‘창의성’의 특성으로, ‘자기 동기 및 조절, 자신감, 끈기 및 집착, 인내, 연습 및 성실성, 성취감 등’은 ‘전통예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의 특성으로 수렴된다(원영실, 2012). 또한 사례연구진(KRIGA, 2008)이 제안한 다섯 가지의 선발 지표는 추정 영재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속성 요인과 외재적 환경 특성 요인으로 분류가능하다. 예컨대 ‘기예 요인과 예술적 통찰 요인, 도전감이나 야망, 보수 등을 의미하는 기타 요인’은 영재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속성’에 포함된다. 나아가 영재의 내재적 속성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예와 통찰 요인’은 영재의 내재적 속성 중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심리학적 구인이며, ‘기타 요인’은 영재의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심리학적 구인이다. 상대적으로 ‘교육 요인과 환경 요인’은 영재의 내재적 속성을 지속시키고 극대화시키는 ‘외재적 환경 요인’에 속한다. 결국 전통예술 명인들이 제시하고, 연구진(KRIGA, 2008)에 의하여 수렴된 전통예술영재성의 속성은 영재의 인지적 특성 및 정의적 특성을 아우르는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환경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전통음악, 전통무용, 연희의 세 영역별 구체적인 하위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가. 전통음악영재성

서양음악과 전통음악 영재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음악영재의 경우 비교적 어린 연령대에 판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상 어린 연령대부터 확연하게 구분되는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영재성의 차별화 지점을 추적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음

악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면 이러한 구분은 더욱 모호해진다. 예컨대 서양음악영재이든 전통음악영재이든, 어린 시절에 소리나 리듬에 대한 정교한 지각 및 인지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창의성과 동기 구인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면 이들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원영실, 2009). 즉 이들은 성장하면서 개인의 환경 및 동기적 상황에 따라 서양음악 혹은 전통음악 영역을 선택한다.

1) 전통음악에 대한 능력

전통음악영재성은 음, 장단, 음색에 대한 예민한 지각 및 인지능력, 음 기억력 등의 기초적인 음악성을 포함하는데 이는 서양음악의 경우와 동일하다(KRIGA, 2006). 환언하면 서양음악의 음정 도식인 평균율 음정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영재는 전통음악의 음정 도식인 선법이나 음색에 대한 정확한 지각 및 인지도 가능하다. 또한 서양음악영재성의 하위 속성인 리듬감이 높은 영재는 전통음악의 장단 인지능력 또한 높은 수준이다. 결국 음악의 기본 속성인 음이나 리듬에 대한 지각 및 인지능력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서양음악이나 전통음악 영재성의 차이점은 없다(KRIGA, 2006; 원영실, 2009, 2010).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린 연령의 전통음악영재를 판별할 때, 판별시점 기준, 추정 영재가 국악기나 국악가창을 전혀 접해보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들에게 익숙한 서양음악 악곡 가창을 시켜보고 정확한 음정과 리듬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하여 선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KRIGA, 2006).

전통음악영재성의 하위 속성인 음악적 능력에 대한 전통음악 명인들의 제보(<표 7> 참고)를 분석하여 수렴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전통음악 명인들의 제보에 따른 전통음악영재성의 음악적 능력

- 음감(음, 선율 지각)	- 리듬감(장단 및 박자 지각)	- 시창 및 청음 능력
- 기초음악성	- 음악적 재질(음악적 소질)	- 음악적 해석 능력
- 음악적 감각	- 음악적 기량(음악적 기교)	- 음악암기력(기억력)
- 독보력	- 빨리 배우기(음악학습속도)	- 좋은 머리(영리함, 영특함)

<표 8>에서 보듯이 전통음악영재성에 녹아있는 음악적 능력이란 전통음악에 대한 통합적인 인지능력을 의미한다. 즉 명인들이 제보한 음악적 능력은 ‘음감과 리듬감(장단감)을 포함한 기초음악성, 음악적 감각을 포함한 음악해석력’과 같은 음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전통음악 학습속도가 보통사람보다 빠르고, 대체적으로 지적능력 수준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음악 성악 분과의 경우 ‘타고난 목, 성량’이 거론되었는데, 이는 기악 분과와는 구별되는 특성이다. 즉 성악 분과에서 대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타고난 목소리’라는 선천적 특성이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 및 교사 관찰정보지에 나타난 국악적 능력 관련 문항(원영실, 2011, 2012, 2013)을 보면(<표 2> 참고), 서양음악영재성의 하위 속성인 음악적 능력의 특성과 거의 동일하다.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어린 연령의 영재일수록 그가 지닌 음

악적 능력이 전통음악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음악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인지의 경계가 모호하다. 환언하면 전통음악 분야에서 요구하는 음악적 능력의 속성은 모든 음악 분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이다.

전통음악 명인들의 제보 내용과 실제 영재판별에 적용되는 검사문항의 내용들을 통합하여 전통음악영재성에 녹아있는 음악적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가락, 리듬, 빠르기, 셈여림, 음색과 같은 음악의 기본 개념은 서양음악의 속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전통음악도 상기의 음악적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양음악영재성 구인이 음악의 기본 속성을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며 그 개념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높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음악영재성 또한 전통음악적인 선율이나 장단, 음색, 빠르기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린 연령의 추정 영재의 경우, 음악적 능력에 있어서 전통음악과 그 밖의 음악 영역 간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음악 영역에서 요구하는 음악적 능력의 특성은 음악의 기본 속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각 및 인지 능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 전통음악 분야에서의 창의성

전통음악영재성이 창의성을 포함한다는 것은 서양음악영재성의 경우와 같다. 즉 서양음악영재성에 녹아있는 창의성이 음악표현력, 즉흥연주 및 작곡의 범주를 아우르는 음악영역 창의성과 독창성,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을 의미하는 일반창의성으로 구성되듯이, 전통음악영재성 또한 국악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열정적으로 연주하기, 제시된 악구를 변주하거나 새로운 음색을 만들기와 같은 특성을 아우르는 전통음악 분야의 특수창의성과 일반창의성의 속성을 모두 지닌다. 다만 국악적인 소재에 더 잘 반응하거나 ‘시김새’와 같은 국악의 독특한 속성을 잘 표현한다는 점에서 서양음악영재성과 구별된다.

창의성의 하위 요인으로 국악의 요소인 시김새를 거론한 이유는 시김새를 인지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국악영재와 서양음악영재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원영실, 2009). 예컨대 연구자는 서울 소재 국악영재학급의 판별에서 피험자가 ‘국악시김새를 얼마만큼 잘 표현하는지’에 관한 교사관찰문항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 국악 기악이나 가창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동일한 환경 조건의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은 국악적 시김새를 잘 표현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음악성이 이전 학생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김새 표현을 매우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혹은 중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연령의 아동에게서도 관찰된다. 어린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은 국악시김새의 표현을 매우 즐겨워하면서 정확하게 모방하고 표현한다. 이것은 판별자 신뢰도가 높은 국악교육 전문가에게만 관찰될 수 있는 섬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음악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악영역에서의 발전가능성과 국악성취도의 수준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잠재능력의 차이다(원영실, 2009, 2010).

전통음악영재성에 포함되는 창의성 속성에 대한 전통음악 명인들의 제보(<표 7> 참고)를

분석하여 수렴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전통음악 명인들의 제보에 따른 전통음악영재성의 창의성

- 시김새(농현, 떠는 음, 성음)	- 표현력(자기표현)	- 모방(잘 따라하기)
- 즉흥성	- 응용	- 독창성
		- 창작

<표 9>에서 보듯이 전통음악영재성에 녹아있는 창의성이란 전통음악의 속성인 시김새 표현 능력이 우수하고 즉흥성 및 창작을 의미하는 영역 특수 창의성과, 전통음악에 대한 특수한 창의성이 잘 발현되도록 그 기저가 되어 주는 일반창의성의 속성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심리학적 구인이다.

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 및 교사 관찰정보지에 나타난 창의성 관련 문항(원영실, 2011, 2012, 2013)을 보면(<표 3> 참고), 서양음악영재성의 하위 속성인 창의성의 특성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전통예술 명인들이 제안한 시김새(성음, 농현) 표현능력이 제외된 점이 특징인데, 이는 OSPG와 OSTG의 투입 대상이 영재의 부모와 일반 교사이기 때문이다. 즉 시김새를 포함한 국악적 개념에 대한 인지능력은 그만큼 전문가에게 관찰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전통음악영재성에 내재되어 있는 창의성은 서양음악영재성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현력 및 즉흥성, 작곡 능력을 포함한 영역 특수 창의성과 독창성 및 융통성, 정교성 및 유연성을 포함한 일반창의성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심리학적 구인이다. 그러나 시김새를 포함한 독특한 국악적 개념에 정교하게 반응하고 표현하는 정도에서는 두 영재성 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

3) 전통음악에 대한 동기

동기 특성은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영재성의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높은 수준의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을 지닌 영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재는 전통음악에, 어떤 영재는 서양음악에 몰입하고 집중한다. 전통음악영재성은 마땅히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 즉 전통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과 집중력, 전통음악 연주를 함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등의 과제집착력이 전통음악영재성의 하위 특성이다.

전통음악영재가 지닌 동기 속성에 대한 전통음악 명인들의 제보(<표 7> 참고)를 분석하여 수렴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전통음악 명인들의 제보에 따른 전통음악영재성의 동기

- 노력, 연습	- 만족감, 자심감, 자긍심	- 흥미, 집념, 좋아함, 재미, 애정
- 인내력, 끈기	- 열정	- 의지

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 및 교사 관찰정보지에 나타난 동기 관련 문항(원영실, 2011, 2012, 2013)을 보면(<표 6> 참고), 전통음악영재와 서양음악영재의 차별화되는 지점이 해당

분야에 대한 동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전통음악에 대한 강한 흥미와 열정, 전통음악과제에 대한 높은 집중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는 인내력 등의 특성이 전통음악영재가 지니고 있는 동기 관련 세부 특성이다.

결국 전통음악영재성이란 전통음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는 특정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및 전통음악에 대한 강한 동기과 같은 심리학적 구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재적 특성은 부모나 학교를 포함한 환경요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통음악영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요인에 의하여 극대화된다. 이는 서양음악영재성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전통무용영재성

전통무용영재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단지 후속 논의될 발레영재성의 속성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될 뿐이다. 전통무용영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성에 대한 해당 분야 명인들의 제보(<표 7> 참고)를 분석하여 수렴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전통무용 명인들의 제보에 따른 전통무용영재성의 속성

민속무 강선영 명인 제보	궁중무 이흥구 명인 제보
- 재주, 소질	- 자질, 머리, 기능, 응용력, 공부잘함
- 이해력, 따라하기	- 이해력, 따라하기
- 적극성, 몰입, 연습	- 표현력, 창의력, 몸을 표출, 자기표정(자기안목), 자기평가
- 동작 자세	- 노력, 성취욕구, 노력 및 연구
- 스승	- 감수성, 감각성, 객석포용력, 인성,
	- 음악성, 음악이해력
	- 얼굴, 몸매

전통무용영재성의 속성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측면에서 관찰된다. 먼저 명인들이 제보한 재주, 소질, 기능, 응용력, 이해력 등은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는 속성으로, 전통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적 측면의 또다른 특성으로 창의력, 따라하기, 몸표현력, 자기표정, 자기안목, 표현력 등의 창의성 관련 속성이 포함된다. 모든 분야 영재성의 하위 구인으로 창의성이 포함되는 점을 생각해볼 때 전통무용영재성의 하위 구인으로 창의성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 명인들이 제보한 전통무용영재성의 인지적 특성을 보면, 그 속성들이 일반창의성이나 영역일반에서의 지적능력을 의미하기보다 전통무용 영역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능력과 창의성을 의미한다. 즉, 일반지능이나 일반창의성이 전통무용영재성의 속성에 어느 정도 녹아있는지의 여부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무용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이해력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음악성이 전통무용영재성의 주된 속성으로 거론되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전통무용영재는 음악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명인들이 제보한 정의적 측면의 속성을 보면, 적극성, 노력, 성취욕구, 연습 등, 전통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가 전통무용영재성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감수성이나 전통예술에 대한 감각, 객석을 포용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태도 등이 전통무용영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정의적 특성으로 거론되었다.

전통무용영재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체격 및 체력을 포함한 신체적 조건이다. <표 11>에서 보듯이 동작 자세나 얼굴 및 몸매는 공연 상에서 드러나는 전통무용영재의 심동적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무용영재 전문가의 보고(이진호, 2011)에 의하면, 최근 들어 무용영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요인으로 체격조건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발레를 포함한 서구의 무용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무용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일례로 어떤 학생이 전통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창의성,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목선이나 팔 길이가 짧으면 공연예술로서 주는 시각적 아름다움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공연예술 참가의 기회는 줄어든다. 결국 전통무용영재성의 발현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전통무용영재가 지녀야 할 신체적 조건이 영재성 판별의 중요한 지표임을 반영해주는 사례이다.

다. 전통연희영재성

연희는 전통예술의 한 갈래이다. 특히 풍물의 경우, 남사당패와 같은 전문예인 집단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조기교육을 통해 어린 아동을 지도하였으나, 마을 단위나 부락 단위의 두레 풍물에서는 전문적인 예술 활동이라기보다 민속 활동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KRIGA, 2008). 최근 들어 풍물로부터 사물놀이 등이 분화되고, 풍물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공연예술이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풍물분야의 창조적 예술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KRIGA, 2008). 김덕수를 포함한 사물놀이 명인들이 일반 대중에게 국악영재로 인지되는 사회심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풍물을 포함한 연희 영역을 전통예술영재성의 하위 갈래로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먼저 전통연희영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성에 대한 해당 분야 명인들의 제보(<표 7> 참고)를 분석하여 수렴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연희 분야 명인들의 제보에 따른 전통연희영재성의 속성

줄타기 김대균 명인 제보	풍물(사물놀이) 김덕수 명인 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재다능, 이해력, 인지 - 미적판단, 감수성, - 호기심, 상상력, 창조적 질문 - 재미, 학업에 대한 욕심, 열정, 끈기 - 동작 자세, 호흡 - 장단감 - 후계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씩수, 천재소년, 소질, 기능, 적성, 연구, 재주꾼 - 감성적 표현력, 창의력, 응용, 창작, 모방 - 의지, 진취적 기운, 도전감, 노력, 두려움 깨기 - 인성 - 장단감 - 신체조건

전통연희 분야의 영재성은 <표 12>에서 보듯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특성으로 구분되어 관찰된다. 즉 명인들이 제보한 다재다능, 이해력, 소질, 적성, 기능 등은 인지적 특성에 해당되는 구인으로, 연희 영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 요인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미적 판단, 감성적 표현력, 호기심, 상상력, 응용, 창작, 모방 등의 특성은 창의성의 속성으로 볼 수 있으며, 열정 및 끈기, 의지 및 노력, 도전감, 인성 등은 정의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동작 자세 및 호흡, 신체 조건은 심동적 영역에 속하는 특성이다. 또한 연희영재는 높은 장단감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통무용영재성에 녹아있는 높은 수준의 음악성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수렴하면, 결국 전통예술영재성은 해당 분야 - 전통음악, 전통무용, 연희 - 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과 창의성을 포함한 인지적 특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를 포함한 정의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무용과 연희 영재성은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동작 자세를 포함한 신체 조건이 필수적 요인이다. 전통예술영재의 내재적 속성은 스승이나 부모를 포함한 환경 조건의 지원에 의하여 극대화된다. 즉, 환경 조건의 꾸준한 지원이 없으면 전통예술영재성은 사장된다.

3. 발레영재성의 의미와 특성

음악 및 전통예술과 함께 발레 분야의 영재교육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해당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누가 발레영재인가’의 물음이 무용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었고, 그 답변을 얻기 위한 연구들(김기웅 외, 2004; 오레지나 외, 2005; 오레지나, 2009; 이진효, 2011; 이진효, 김현남, 2011)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발레영재성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답변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나아가 어린 연령의 발레영재 평가준거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어 주었다. 발레영재란 춤을 잘 출 수 있는 타고난 능력뿐만 아니라 현재 춤을 잘 추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잘 출 수 있는 가능성, 즉 잠재되어 있는 뛰어난 무용재능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KRIGA, 2010). 그렇다면 잠재되어 있는 무용재능의 구체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무용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먼저 발레영재 판별연구를 수행한 조은숙(2003)에 의하면 발레영재는 ‘신체운동능력, 신체조건, 표현력, 청음능력’을 지녀야 한다. 신체운동능력은 유연성 및 순발력, 뛰기 및 돌기의 능력을 의미하며, 신체조건은 발레에 적합한 신체특징으로서 선이 곱고 긴 팔과 다리 및 목, 유연한 고관절, 작은 머리, 짧은 허리의 체형을 의미한다. 표현력은 발레 테크닉과 상관없이 추정 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특성은 특히 어린 연령의 무용영재를 선발할 때 주된 평가준거로 활용된다. 또한 발레영재는 발레예술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 음악에 대한 높은 지각 및 인지능력(청음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전통무용영재의 경우와 동일하다. 조은숙의 제안은 발레영재성에 녹아있는 동기를 포함한 정의적 특성이 간과되었다는 제한점을 보인다.

조주현(2007)은 조은숙이 제안한 발레영재성의 특성을 더욱 확장시켜, ‘발레지능, 신체요소, 예술적 감성, 심리적 측면, 환경요소’의 5가지 특성을 하위 속성으로 제안하였다. 발레지

능은 발레공연 상에서 요구되는 정교한 움직임과 신체·정서·직관 사이의 관계를 증대하는 능력,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등의 속성을 의미한다(KRIGA, 2010). 신체요소는 체격, 체력, 협응으로 구성되는데, 체격은 발레에 적합한 외양을 의미하며 이는 조은숙이 제안한 신체적 조건과 동일하다. 체력은 유연성 및 평형성, 민첩성 및 도약성, 지구력을 의미하며 이는 조은숙이 제안한 신체운동능력과 동일한 속성이다. 예술적 감성은 자신의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기 위하여 감정을 수용하고 반응하기, 직관적 느낌, 음악성 및 무대 예술적 기질을 의미한다. 이는 조은숙이 제안한 표현성 및 음악성의 측면과 비슷한 맥락의 속성으로, 영재성에 녹아있는 영역 특수 창의성의 하위 구인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측면은 성격 및 동기를 포함한 정서적 측면을 의미하며, 환경요소는 부모의 유전적 요인 및 지원, 가족의 발레 친화적 분위기, 발레 지도자의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의미한다. 조주현의 제안은 발레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과 발레영역 특수 창의성, 동기 수준을 포함한 정의적 특성을 발레영재의 내재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내재적 특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외재적 환경 요인을 그 구성 조건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07)은 발레영재가 지녀야 할 능력으로 ‘움직임 수행 능력, 신체 지능, 표현 및 창작 능력, 태도’의 4가지 요인을 제안하였다. 첫째, 움직임 수행 능력은 신체 조정 능력과 신체협응 능력으로 구성된다. 신체조정 능력은 유연성, 순발력, 근력, 지구력을 의미하며, 신체협응 능력은 균형감, 신체리듬감을 의미한다. 둘째, 신체지능은 다중지능의 하나인 신체운동지능과 동일한 특성으로 동작분석 능력과 동작기억력의 하위 속성으로 구성된다. 동작분석 능력은 공간(spatial)지각 능력, 시간(time & rhythm)인식 능력, 움직임의 질적 요소(energy & dynamics)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동작기억력은 움직임의 회상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표현 및 창작 능력은 무용수와 무용수, 무용수와 물리적 환경, 무용수와 음악 등을 의미있게 조합하고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의미하며, 신체표현 능력과 동작 결정 및 구성 능력, 독창성의 하위 속성으로 구성된다. 신체표현 능력은 음악성, 감수성, 즉흥성의 세부 특성으로, 동작결정 및 구성 능력은 움직임 선별 능력의 세부 특성으로, 독창성은 상상력, 창의성의 세부 특성으로 구성된다. 넷째, 태도는 열정 및 자기동기, 끈기, 사회성, 리더십의 하위 속성으로 구성된다. 열정 및 자기동기는 춤에 대한 애정 및 집요함의 속성을 의미하며, 끈기는 인내심, 성실성, 자기절제력의 속성을 의미한다. 사회성은 동료에 대한 배려심과 협동심을 의미하며, 리더십은 책임감과 도전의식을 의미한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제안은 발레영재성의 특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레영재성의 속성에 대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연구는 이후 지속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 수행된 연구(KRIGA, 2010; 이진효 외, 2011)에서는 Renzulli의 삼원영재성 모형과 발레영재성 속성에 대한 무용전문가의 견해를 조합하여, 발레영재성의 특성으로 ‘신체적 요인, 동작기술 능력, 표현 및 창의성, 무용 태도’의 4요인이 제안되었다.

첫째, 신체적 요인은 발레수행에 적합한 신체의 생리적, 해부학적 측면인 무용체격과 신체의 기능적 측면인 무용체력으로 구분된다. 먼저 무용체격은 무용수 신체의 해부학적 변인

에 해당되는 것으로 근육의 모양과 골격 구조를 포함한 신체의 외관적 형상 및 신체정렬 상태, 신체분절간 비율, 신장, 체중, 외모 등을 의미한다(KRIGA, 2010). 발레영재는 신체를 통한 자각 및 표현 능력이 우수함과 동시에 발레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유능한 발레무용수는 외배엽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박진희, 2003)가 있다. 소위 ‘길고 가늘다’라는 말로 표상되는 외배엽형은 내배엽형과 중배엽형과는 구분되는 형질이다. 외배엽형은 얼굴이 가름하고 이마가 넓으며 턱이 뒤로 빠져있다. 가슴과 배는 좁고 팔과 다리는 길며, 전체적으로 체지방과 근육양이 적다. 잘 먹어도 몸무게가 쉽게 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무용체력은 예술적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신체적 능력을 의미한다(김기웅 외, 2004). 체력은 무용동작기술 수행의 지원체계로서 기술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성을 의미한다(KRIGA, 2010). 무용은 난이도 높은 신체기술이 필요한 예술이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양한 무용 동작을 최상으로 표현하고 반복 동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골격계와 심폐계, 신경계 등이 체계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며 이는 힘과 유연성, 신경근의 협조, 심폐기능 및 신체구성 등의 제반요소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무용수의 체력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 무용수의 체력 요인으로 우수한 유연성, 평형성, 심폐지구력, 순발력, 근지구력, 근력, 평균과위의 특성이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KRIGA, 2010).

무용영재 평가도구 개발 연구(KRIGA, 2010)에서는 발레리나 및 현대무용가, 한국무용가 및 무용이론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용영재성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설계된 문항의 구인타당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 발레영재의 부모를 대상으로 투입하는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개발 연구(KRIGA, 2011)가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검사도구에 나타난 발레영재의 신체적 조건 관련 문항은 해당 영재성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준다.

<표 13> 무용영재 평가도구 및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에 제시된 신체적 요인

무용영재 평가도구 문항내용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문항내용
- 다리가 휘지 않고 곧게 뻗어 있다.	-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 뛰어나다.
- 신체적인 비율이 조화롭다.	- 신체적 비율이 좋다.
- 포인이 잘된다(발등이 높다).	-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다.
- 골반이 열려 있다.	- 오랫동안 동작연습을 할 수 있다.
- 척추가 곧다.	- 동작이 유연하다.
- 두상 및 얼굴 크기가 작다.	- 균형잡힌 몸매를 갖추고 있다.
- 팔과 다리가 길다.	- 체력이 강하다.
	- 균형 감각이 좋다.
	- 동작이 빠르다.

<표 13>에 나타난 문항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체격 및 체력을 포함한 신체적 조건은 발레영재성의 주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동작기술 능력은 발레동작의 탁월한 재현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의 동작이 물리적 상황에서 시간 및 공간, 힘의 제어를 통해 구성되듯이, 발레동작 역시 세 가지 요소의 제어

능력을 기본전제로 한다. 동작기술 능력은 시제화(phasing), 공간화(spatialization), 조력화(grading)의 기능적 능력을 의미한다(김기웅 외, 2004). 시제화는 동작의 순서, 동작과 박자의 일치 정도, 사지협응 정도, 연결동작의 균집화 정도를 의미하며, 공간화는 신체 부분의 각 방향과 위치의 정확도 및 무대 공간의 정확한 활용을 의미한다. 조력화는 힘 분배의 정확도, 동작의 자연스러움과 조화성을 의미한다(김기웅 외, 2004). 동작기술 능력의 구체적인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무용영재 평가도구 및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에 나타난 동작수행 능력 관련 문항을 살펴보았다.

<표 14> 무용영재 평가도구 및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에 제시된 동작수행 능력

무용영재 평가도구 문항내용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문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협응(coordination)을 잘한다. - 무용동작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 음악과 동작을 조화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을 따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 춤(동작)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 춤(동작)을 익히는 속도가 빠르다. - TV에서 춤추는 장면이 나오면 따라한다. - 어색한 동작없이 춤을 잘 춘다.

<표 14>에서 보듯이 무용전문가나 부모에게 관찰되는 발레영재의 동작수행 능력은 시제화, 조력화, 공간화의 능력을 의미한다. 즉 신체적 조건과 더불어 동작기술 능력은 발레영재성의 하위 심리학적 특성이다.

셋째, 모든 영재성의 하위 속성에 창의성이 포함되듯이 발레영재성 또한 표현 및 창의성을 포함한다. 발레영역에서의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견은 다양하다. 오레지나(2006)에 의하면, 무용창의성이란 인간 개인의 주체성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상황들이 주는 자극에 의한 반응을 말하며 이것은 인간이 동물로써 반응하는 생각임과 동시에 문화적 생산으로 연결되는 인간 특유의 자산이다(KRIGA, 2010). 그에 의하면 무용창의성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성된다. 내적요인은 움직임 감각, 심미적 감각, 무용사고력, 무용작품구성력, 무용태도의 하위 요인을 의미하며, 외적요인은 예술체험 요인을 의미한다. 발레영재성에 녹아있는 표현 및 창의성의 구체적인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무용영재 평가도구 및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에 나타난 표현 및 창의성 관련 문항을 살펴보았다.

<표 15> 무용영재 평가도구 및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에 제시된 표현 및 창의성

무용영재 평가도구 문항내용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문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이 독창적이다. - 공간을 잘 활용하여 움직인다. - 즉흥적인 표현능력이 뛰어나다. - 리듬 감각이 뛰어나다. - 풍부한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춤을 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동작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춘다. -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무용동작을 한다. - 자신의 감정을 무용 동작으로 표현한다. -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한다. - 무용동작을 창작하는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 느낌을 몸동작으로 잘 전달한다.

발레영재의 표현 및 창의성은 <표 15>에서 보듯이 독창적이고 즉흥적인 동작표현 능력과 발레예술에 대한 심미적 감각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무용동작과 관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유창성, 풍부한 감수성 및 정교한 표현력 등의 심리학적 구인을 의미한다. 결국 표현 및 창의성은 신체적 조건 및 동작기술 능력과 함께 발레영재성의 하위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발레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무용태도 구인은 발레영재가 지녀야 할 필수적 요인이다. ‘무용을 하지 않고서는 건드릴 수 없는 상태’를 ‘무용성향’(김윤진, 2004) 이라고 하는데, 발레에 대한 강한 수준의 과제집착력은 이러한 무용성향과 관련이 있다. 발레영재가 지니고 있는 무용태도의 구체적인 심리학적 구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무용영재 평가도구 및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에 나타난 무용태도 문항을 살펴보았다.

<표 16> 무용영재 평가도구 및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에 제시된 무용태도

무용영재 평가도구 문항내용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문항내용
- 춤을 출 때 적극적이다.	-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해한다.
- 춤을 추는 자체를 즐긴다.	- 춤을 잘 추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한다.
- 자신감이 있다.	- 무용에 대한 흥미가 높다.
- 춤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다.	- 무용 수업을 성실하게 임한다.
- 끈기가 있다.	- 연습할 때 몰입한다.
	- 무용이 힘들어도 끝까지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 무용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 무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표 16>에서 보듯이 발레영재의 무용태도는 춤에 대한 적극성 및 몰입, 집중력 및 끈기, 무용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또한 무용태도는 발레영재 부모에게 명확하게 관찰되는 심리학적 구인으로, 발레에 대한 강한 흥미 및 몰입, 인내와 끈기, 발레연습에 대한 성실함과 강한 의지 등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무용태도는 신체적 조건, 동작기술 능력, 표현 및 창의성과 더불어 발레영재성의 하위 심리학적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수렴하면, 결국 발레영재성은 그에 적합한 체격 및 체력을 의미하는 신체조건, 무용동작수행 능력, 표현성을 포함한 창의성, 발레에 대한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강한 수준의 동기과 같은 심리학적 구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레영재의 내재적 속성은 부모나 학교를 포함한 환경요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레영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요인에 의하여 지속되며 극대화된다.

III. 결 론

영재성의 의미 규정은 후속되는 영재 판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특정 영재성의 세부 심리학적 구인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수렴된 요인을 중심으로 타당한 영재판별을 수행할 수 있고, 판별결과에 입각한 영재교육과정을 투입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

는 예술영재성의 의미 및 세부 특성에 관한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체계적인 예술영재교육의 투입을 돕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예술의 범주는 음악, 전통예술(전통음악, 전통무용, 연희), 발레 분과이다. 예술영재성의 의미 및 특성 수렴을 위하여 해당 분과 영재성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사례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예술(음악, 전통예술, 발레)영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수렴적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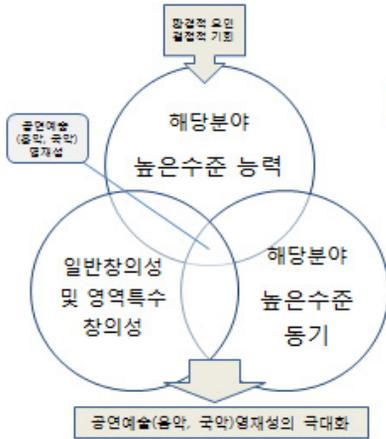
첫째, 음악영재성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적 능력, 일반창의성과 음악 영역 특수 창의성, 음악에 대한 강한 동기’의 세 가지 심리학적 구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재적 특성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외재적 환경 요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음악영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요인에 의하여 극대화된다.

둘째, 전통음악영재성은 ‘전통음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는 특정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및 ‘전통음악에 대한 강한 동기’와 같은 심리학적 구인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내재적 특성은 부모,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외재적 환경 요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통음악영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요인에 의하여 극대화되는데, 이는 음악영재성의 경우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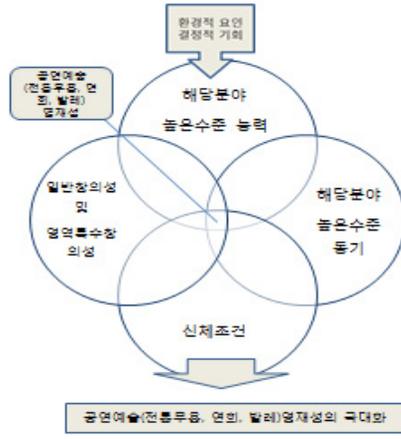
셋째, 전통무용영재성은 ‘전통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 전통무용 영역 특수 창의성, 전통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 신체적 조건’이라는 네 가지의 내재적 속성으로 구성된다. 서양음악, 혹은 전통음악영재성과 차별화의 지점은 ‘신체적 조건’이 해당 영재성 실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전통무용영재성의 내재적 속성은 음악과 전통음악의 경우와 같이 외부환경 조건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결정적 기회 요인에 의해 극대화된다.

넷째, 전통연희영재성은 ‘연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 일반창의성 및 연희 영역 특수 창의성, 연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 동작 자세 및 신체적 조건’의 네 가지 심리학적 구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작 자세 및 신체적 조건’이라는 주요 구인은 전통음악을 포함한 음악영재성의 속성과는 구별되는 특징인 동시에 전통무용영재성의 속성과는 유사한 특징이다. 또한 부모 및 사회의 관심과 지원, 연희영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요인이 지속되어야 전통연희영재성의 속성은 사장되지 않는다. 이는 음악, 전통음악, 전통무용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섯째, 발레영재성은 ‘신체조건(무용 체력 및 체격), 동작기술 능력, 표현성 및 창의성, 동기’의 네 가지 심리학적 구인이 상호 교류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무용 체력 및 체격을 의미하는 신체조건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다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발레영재성의 특징은 전통무용영재성의 특징과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음악,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영재성의 경우와 같이 발레영재성 또한 부모와 학교, 사회의 지원 및 발레영재성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 기회 요인에 의하여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림 1] 음악 및 전통음악 영재성



[그림 2] 전통무용, 연희, 발레 영재성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예술영역 간 공통된 특성은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 일반창의성을 포함한 영역 특수 창의성,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의 세 가지 내재적 속성이다. 즉 예술영재성의 내재적 속성은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과 창의성을 아우르는 인지적 측면과 동기를 포함한 비인지적 측면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무용, 전통연희, 발레 영역의 경우 체격과 체력을 의미하는 신체 조건이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음악 및 전통음악 영재성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예술영재성의 내재적 속성은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외재적 환경요인의 지속적인 지원과 영재성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 변인의 영향을 받아 극대화된다. 환언하면 아무리 우수한 능력과 창의성, 높은 수준의 동기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 요인의 지원과 결정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예술영재성은 사장된다.

영재성의 세부 특성 관련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영재성의 속성 자체가 매우 복잡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영재성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음악과 전통예술, 발레 분야의 영재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수렴적 논의를 담당하였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된 속성만이 예술영재성의 불가변적 특성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예컨대 최근 영재성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리더십(leadership)’의 경우, 비록 이 논문에서는 예술영재성의 하위 구인으로 수렴되지 않았지만 향후 예술영재성의 주요 조건으로 거론될 수 있는 심리학적 속성이다. 리더십은 공연예술 상에서 품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적 특성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분야의 스승과 동료들, 나아가 일반대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인지적 혹은 비인지적 측면도 리더십의 지표로 채택될 수 있다고 예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어린 연령의 추정 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은 향후 공연예술 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탁월한 표현력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리더십 요인이 예술영재성의 하위 특성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예술의 범주는 음악, 전통예술(전통음악, 전통무용, 연희), 발레로 제한되었다. 보다 타당한 예술영재성의 특성 수렴을 위해서는 타 영역 예술영재성의 속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규상 (2011). **예술영재교육의 정책과 제도**. 예술영재교육 관리자연수(2011) 자료집,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서울: 계문사.
- 김기웅,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2004). **무용영재 판별도구 개발연구 II**.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교육정책과제, 미간행.
- 김윤진 (2004). **무용성격 본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경빈 (2012). 한국영재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2(4), 823-840.
- 박진희 (2003). 국내 최고 무용수의 형태학적 특성. **한국체육학회지**, 42, 775-788.
- 성경희 (1993). **한국에서의 음악영재 발굴과 교육의 방향**. 음악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엄 발표자료.
- 신혜경, 정진원 (2012). 음악영재교육을 위한 음악창의성 프로그램의 개발. **음악교육연구**, 41(1), 25-59.
-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김기웅 (2005). 무용영재성의 요인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4(4), 745-752.
- 오레지나 (2009). 무용영재 판별을 위한 실기과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 1-15.
- 원영실 (2009). **국악영재 판별을 위한 가락 및 리듬 인지능력 검사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원영실 (2009). 국악적성검사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낭만음악**, 21(3), 135-180.
- 원영실 (2010). **음악영재 진단평가 모형 개발-국악 및 서양음악 분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보고서, 서울: 계문사.
- 원영실 (2011). 음악(국악)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의 문항개발 및 적용. **음악교육연구**, 40(1), 241-273.
- 원영실 (2011). 음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의 개발 및 적용. **음악과 문화**, 25, 147-176.
- 원영실 (2012).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OSPG)의 구인타당화. **영재교육연구**, 22(1), 61-85.
- 원영실 (2012). **공연예술영재성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조명**.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보고서, 서울: 계문사.
- 원영실 (2013).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OSTG)의 구인타당화. **영재교육연구**, 23(1), 1-24.

- 이진효 (2011). **무용성향의 본질 탐색 및 측정도구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진효, 김현남 (2011).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 및 평가기준 분석. **한국예술교육학회지**, 9(2), 77-95.
- 조은숙 (2003). **발레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보고서, 미간행.
- 조주현 (2007). 발레영재성 구성요인의 탐색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1), 15-31.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예술영재 교육과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향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I)**.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7).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II)**.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8). **사례를 통한 전통예술 분야의 영재 개념 및 선발에 관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0). **무용영재 평가범주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 현경실 (2004). **한국음악적성검사**. 서울: 학지사.
- 한기순, 양태순 (2007). 최근 국내 영재교육연구의 흐름: 2000-2006년도 연구물 분석. **영재교육연구**, 17(2), 338-364.
- Gagne, F. (2003). Transform Gifts into Talents: The DMGT as a Developmental theory. In N. Colangelo & C. A. Davis(ed.),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60-74). Boston, MA: Allyn & Bacon.
- Gordon. E. (1982).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G.I.A. Pub.
- Gordon. E. (1986).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G.I.A. Pub.
- Gordon. E. (1987).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 G.I.A. Pub.
- Gordon. E. (1989). *The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G.I.A. Pub.
- Haroutounian, J. (2002). *Kindling the spa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Pherson, G. E. (2003). Giftedness and talent. In G. McPherson (Ed.), *The child as musician* (pp. 239-25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n*, 60, 180-184, 261.
- Seashore. C. E. (1939). *Seashore Measures of musical talent*. New York: Columbia Phonograph company.
- Wing. H. D. (1960). *Manual for standardized test of musical intelligence*. Windsor: National Foundation Educational Research Publication.

= Abstract =

A Study on Conceptions of Giftedness in Arts

YoungSil Won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Exploring the conceptions of giftedness in arts is very important as the essential prerequisite to identification of giftedness and organizing the curriculum for the gifted in arts. So I have explored the conceptions of giftedness in western music, korean traditional arts(music, theatricals, dance) and ballet based on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and cases. The three fields of performing arts mentioned above are operating in the present fields on gifted education in Korea.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 have converged three or four factors on main psychological constructs of giftedness in arts. The giftedness in western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is composed of three sub-factors: high ability in relevant domain, high creativity in general and specific areas, and high motivation including task commitment. However, the giftedness in traditional theatricals, dance, and ballet consists four sub-factors: the physical condition, high ability in relevant domain, high creativity in a specific area, and high motivation including task commitment.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in arts mentioned above can be maximized through supporting external conditions like social environments including family and school, and crucial opportunity to meet the teacher who affects the development of giftedness.

Key Words: Giftedness in arts, Giftedness in western music, Giftedness in korean traditional arts, Giftedness in ballet, Conception of giftedness

1차 원고접수: 2013년 11월 1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12월 27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12월 27일